

202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총평

- 인 문 계 열 문 항 1 -

인문계 <문항1>은 제4차 산업혁명, 디지털 경제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다룬 3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. 문제는 "<가>와 <나>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, <다>를 바탕으로 <가>와 <나>를 평가"하도록 하였다.

대부분의 답안들이 1,000자 분량 내외로 작성되었으며 문제의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였고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서술하였다. 제시문의 핵심을 요약하고 3개 제시문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대체로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다. 그러나 1등급을 받지 못한 답안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<가>와 <나>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면서, 특히 디지털 경제를 바라보는 두 제시문의 '차이점'만 언급하였다. 그런 점에서 답안의 전반부에 <가>와 <나>를 비교 분석하여 '공통점'도 지적인 답안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.

또한 답안의 후반부는 <다>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양적, 질적인 변화와 관련해 <가>와 <나>의 주장을 평가하는 작업이었는데, <다>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<가>와 <나>와 곧바로 연결하여 답안을 기술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. 또한 어떻게 <다>의 현상이 <가>와 <나>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지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였다. 결국 각 제시문을 분석적, 비판적 관점에서 읽고 문제가 기대한 순서대로 답안 내용을 구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.

모의논술 경험을 통해 본 논술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유념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.

첫째 제시문들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. 문제를 먼저 읽고 각 제시문의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3개의 제시문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해야 한다. 둘째 1,0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할 때도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문제를 다시 쪼개어 답안은 3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이다. 이는 서론-본론-결론 구성이 아니라 문제가 요구하는 순서대로 단락개념을 갖고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. 셋째 문장은 짧게 쓰는 단문 형태가 낫다. "~했고, ~했으며" 등으로 한 문장을 길게 이어가거나 "그리고, 그래서, 또한" 등과 같은 접속사 사용이 빈번한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. 맞춤법, 띄어쓰기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.

무엇보다 숙명여대 인문계 논술은 주어진 문제와 각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, 출제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채점위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다.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되 자신의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.

202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총평

- 인 문 계 열 문 항 2 -

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해당 주제(혐오)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이해가 있었고, 답안 작성에 필수적인 논증글의 기본 패턴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. 하지만 문제 풀이 및 답안 작성 과정에서 독해 방법, 분석 방법, 답안 작성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. 아직 학생들이 본논술 전 준비 단계이므로, 학교 수업을 통해서 논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.

고득점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.

(1) 제시문에 대한 '체계적' 독해가 부족하여 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. 그 결과 답안에 제시문을 맥락 없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특정 단어에만 치중하여 정반대의 내용을 쓰게 된다.

(2) 출제자는 발문(질문)을 수험생의 사유와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므로, 질문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그 과정에 맞춰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.

(3) '인문 2번' 문항의 첫 번째 부분은 '비교' 문제이므로 제시문들을 따로 요약하기보다는 먼저 '비교의 범주들'을 먼저 짚 다음 분석 결과를 범주별로 서술해야 한다.

(4) '인문 2번' 문항의 두 번째 부분은 '적용' 문제인데, 앞서 (3)에서 만든 분석틀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(제시문별 별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).

202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총평

- 자연계열 문항 -

제시문 <가>에서는 완전수를 정의하고 어떤 자연수가 완전수가 될 조건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. <문제 1-1(a), 1-1(b)>에서는 제시문 <가>에서 소개된 증명 방법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자연수가 완전수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.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시문 <가>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.

제시문 <나>에서는 증가함수의 정의를 기술하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소개한다. <문제 1-2(a)>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도함숫값을 갖는 x 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는지 평가한다. <문제 1-2(b)>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을 보일 수 있는지 평가한다. 많은 학생들이 <1-2(a)>는 쉽게 풀었으나 <1-2(b)>에서 $g(x)$ 가 $x > 0$ 에서 증가함을 보이기 위하여 $x > 0$ 일 때 $g'(x) > 0$ 임을 보이면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.

제시문 <다>에서는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여 구한다. <문제 1-3(a)>에서는 제시문 <다>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상황에서 로그의 성질 및 등비급수의 수렴을 이용하여 제시된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 <문제 1-3(b)>에서는 급수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진 범위 안에서 바르게 그릴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- ▶ <1-3(a)> 문제 : 상당수의 학생들이 로그의 성질을 잘 알고 활용하였으나 로그의 진수가 양수이라는 조건을 간과하였다.
- ▶ <1-3(b)> 문제 : 그래프의 개형을 미분을 이용하거나 대칭성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지 못하였다.

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계열 문항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.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여 습득된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증명이나 풀이방법을 되도록 많이 읽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